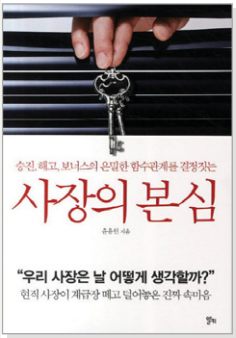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 될 가까운 책**  
강수돌 외 지음  
부키  
416쪽  
14,800원

좋은 책이라고 항상 널리 알려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획한 '아까운 책' 시리즈의 첫 번째로 2000~2010년까지 21세기의 첫 10년을 결산했다. 판매부수 면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했지만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만큼은 '최고'로 여겨지는 분야별 걸작들이다. '글쟁이' 46명이 문학, 인문, 사회, 경제·경영, 과학, 문화·예술 분야의 추천서를 소개하고 함께 읽으면 좋을 책도 안내했다. <진술>은 지독하고 쓰리고 아픈 연애소설이자 추리소설이며 인물들의 내면을 잔혹할 정도로 파헤친 심리소설이란 이유로 선정됐다. <삼엽충>은 독자들이 과학 서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소를 고루 담은 책이어서 꼽혔다. 과학적 사실과 이론은 물론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학과 사랑에 빠지고 과학을 실천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다. <경제학 3.0>은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와 더불어 열린 2000년대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고 있는지 분석한 점이 돋보여 문히기 아까운 책 목록에 올랐다.

이들을 여기저기 등장시켰고 달빛 냄새를 풍기는 나무도 한 그루 심어 놓았다. 차를 마시고 글을 쓰고 만나는 이들과마다 정성껏 이름을 불러 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과 귀를 열었다. 그러나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지는 계획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시간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면 진짜 삶과 마주칠 수 있었던 덕분이다. 1초, 그리고 또 1초... 생이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을 체험하고 그때마다 글로 옮겼다.



**사장의 본심**  
윤영인 지음/알키/280쪽/13,800원

"집중해서 일하고 칼퇴근하라"고 하지만 진짜로 제 시간에 퇴근하면 마음 상하는 게 사장들이다. 무심한 척하며 "아까 말한 건 어찌 됐냐?"고 물어보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칼을 가는 것도 사장들이다. 직장인의 약 77%가 자신이 상사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장이 생각하는 직원 평가의 기준을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지 모를 일이다. 1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 온 현직 사장의 말이니 귀 기울여도 좋을 듯하다. 직원들에게 서운해 하기 전에 사장의 본심을 알려 주는 게 발전적이라는 생각에 '사장'이라는 계급장을 내려놓고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경험은 물론 그 동안 만난 수많은 사장의 생각도 과감히 드러냈다. 직원을 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사장의 행동과 결단의 이면도 날이 공개했다. 조직의 생리를 알고 사장을 이해해야 직장생활을 제대로,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한 1초들**  
곽재구 지음  
틀  
352쪽  
13,800원

<사평역에서> <포구기행> 등으로 몽클한 감동과 위로를 주었던 저자가 9년 만에 발표한 산문집. 인도 시인 타고르의 고향 산티니케탄에서 540일간 머무르며 철나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한 기록들이다. 1970년대 중반 극도로 피폐하던 시절, 저자는 타고르의 시를 읽으며 행복을 느꼈고 지상의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다고 위로받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처음 쓴 시를 타고르에게 보여 주고 싶었던 그다. 그로부터 40여 년 만에 그의 고향을 찾았으니 오래 묵혀 뒀던 마음의 여행을 비로소 떠난 셈이다. 저자는 책속에 무욕으로 투명한



**혼자 사는 즐거움**  
사라 밴 브레스낙 지음  
신승미 옮김  
토네이도  
336쪽  
15,000원

'뉴욕 타임스' 120주 연속 베스트셀러로 30개 나라에서 출간돼 700만 명의 독자와 만난 책. 너무 바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잊어버린 이들을 위한 책이다.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기보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삶을 찾으란 뜻이다. 더불어 살아가되 자기만의 고유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란 얘기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단 한 번뿐인 삶을 제대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하다면 아마 당신의 인생에는 당신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묘지를 찾아 죽은 자와 산 자의 의미를 새겨 보고,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일지로 작성해 보고, 나만을 위한 안식일을 정하고, 자기만의 비밀스런 기념일을 만들고 기리라는 구체적인 조언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만하다.



**팔로워십**  
바버라 켈러먼 지음  
김충선 외 옮김  
더난출판사  
424쪽  
16,800원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이자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50대 경영사상가 바버라 켈러먼. 그런 그가 "지금쯤 리더

가 아닌 팔로워의 시대'라며 정치뿐만 아니라 사업,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리더 중심의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선언했다. 팔로워가 리더에게 의존하는 시대는 한물갔고 리더가 팔로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됐다는 주장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리더란 권력, 권한,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고 팔로워는 덜 가진 사람이다. 그럼에도 왜 팔로워가 중요하다고 한 것일까? 팔로워가 단순히 리더를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고대 로마의 노예 반란, 프랑스 대혁명, 한국의 민주화운동 등은 시대와 장소가 모두 다르지만 수많은 팔로워가 리더에 대해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를 바꾼 사건들이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조직이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오히려 직원과 시민들에게 감사받고 있다. 좋은 삶은 팔로워를 인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사진을 바꾼 사진들**  
최건수 지음  
시공아트  
464쪽  
18,000원

위대한 작품은 때로 무모한 도전에서 나온다. 특히 예술은 속성 중의 하나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뼈뺀 시선이나 행동이 예술에서만큼은 오히려 무기가 된다. 이 책에 등장하는 20명의 사진가도 그렇다. 일탈, 기발한 상상력 등으로 훌륭한 작품을 낳았다. 요즘은 카메라 성능이 워낙 뛰어나 초보라도 쉽게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다. 그렇다고 누구나 '예술가'라고 불리진 않는다. 흉내 낼 수 없는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과 조각, 사진과 회화, 사진과 영상... 뭔가 융합할수록 각광받는 시대이지만 그저 섞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시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대상의 정체성을 끝없이 탐구해 탁월한 이미지와 독특한 얘기로 바뀌 냈다. 셔터 속도를 변화시켜 탄생시킨 인물 사진이 그렇고, 지루한 풍경에 초점을 맞춰 뜻밖의 재미를 얻어낸 작품이 그렇다. 주제도 의도도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은 상상력, 분야와 기법에 한계를 두지 않았기에 '예술'로 거듭났다.



**이기적 이타주의자**  
엘런 패닝턴 지음  
김선아 옮김  
사람의무니  
370쪽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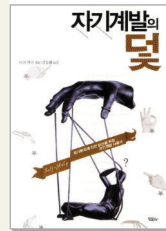
가격보다 가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자신이 등장했다. 이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에 종말을 고한다. 나를 위해 물건을 사지만 그것이 환경과 생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한다. 저자는 이들을 '이기적 이타주의자'라고 명명했다. '내일을 위한 신발' 만들기를 목표로 내건 탐스슈즈. 이 회사는 소비자가 신발을 한 켤레 구입하면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한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우수한 디자인과 편안함에 좋은 의도까지 담고 있어서다. 이 책은 앞으로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늘어나면 무엇을 사고, 왜 사며, 어떻게 사는지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기존의 제조법, 판매 박힌 마케팅, 전통적인 영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게 틀림없다. 실제로 '이기적이기만' 한 회사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기적 이타주의자들이 점점 집단화하고 있어 윤리적으로 생산하고 진정한 가치를 담지 않으면 기업은 더 이상 생존이 어려워질지 모르게 됐다.



**퓨처 마인드**  
리처드 왓슨 지음  
이진원 옮김  
청림출판사  
304쪽  
15,000원

인터넷, 스마트폰, 트위터... 덕분에 삶이 편해졌지만 인간의 사고력은 오히려 퇴보하는 듯하다. 새로운 정보를 쫓아다니는 데에만 머리를 쓰니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사고능력은 기를 틀어 없어진 것이다. 세계 3대 미래학자의 하나로 꼽히는 저자는 "미래는 먼저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주도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선 하루 8시간 넘게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에 매달리는 10대들에 주목했다. 이들은 사소한 내용을 끊임없이 주고받는다 것을 알아냈고, 그 결과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전곡은커녕 한 곡도 끝까지 듣지 못할 만큼 산만하며 우려한다. 컴퓨터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글자보다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비논리적이고 단편적으로 사고한다고도 지적한다. 결국 이들은 의사결정력이 부족해져 위기를 맞을 것이라 한다. 대책은 없을까? '디지털 다이어트'가 저자의 처방이다. 디지털 이용은 줄이고 대신 깊이 사고하란 뜻이다. 기계가 똑똑해져 논리적인 일까지 처리할수록 인간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고를 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는 얘이기도 하다.



**자기계발의 밧**  
미키 맥기 지음  
김상화 옮김  
모요사  
396쪽  
17,000원

언젠가부터 자기계발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꿈꾸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책들이 정말로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 있을까? 저자는 책에서 사회학자이자 문화비평가로서 유명한 자기계발 서들의 허와 실을 파헤친다. 이와 동시에 무한경쟁을 강요당하는 오늘날, 끊임없이 자기계발의 압박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불안감도 지적했다. 개개인이 불필요하게 과중한 짐을 지게 됨으로써 자아를 너무 혹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쁨과 행복은 실종되고 공허와 피로, 불안만이 사람들을 휩싸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계발을 원한다면 먼저 어떤 가치를 삶의 목표로 삼을지를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m

서지훈 기자 ibuddy@hanmail.net